

보도시점 2023. 9. 18.(월) 배포 즉시

'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취약청년을 위한 사업 등에 전년 이상으로 지원합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3.9.18.(월) 세계일보는 「쫄그라든 청년 일자리·복지 예산 고용충격·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」 기사에서,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면서,
 - 일반회계 기준 내년도 청년 취업 지원 및 고용 관련 예산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감소에 따라 올해 1.5조원에서 내년 1.1조원으로 축소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 입장 >

- '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인구 감소,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.
- 다만,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한시지원기간 종료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.
 - ① 코로나 등에 따른 청년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사업으로 추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(최대 3년간 지원)은 '21년 5월 신규지원이 마감되어 사업예산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

* 청년추가고용장려금: ('21) 12,018 → ('22) 9,952 → ('23) 2,293 → ('24案) 171억원

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은 청년고용상황 개선**에 따라 '23년 신규 지원인원을 축소('22년 14 → '23년 9만명)함에 따라 '24년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.

*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에 2년간 지원금을 지급(최대 1,200만원)

** '15~'29세 고용률(%): ('19) 43.5, ('20) 42.2, ('21) 44.2, ('22) 46.6

- 그러나 '24년의 신규지원 인원은 NEET 등 취업취약청년 고용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'22년 수준으로 확대('23년 9 → '24년 12만명)할 계획입니다.

③ 청년내일채움공제는 '23년 신규 가입실적이 당초 목표 인원(2만명) 대비 극히 부진('23년 7월 기준 2,493명)하여 '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종료하고,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합니다.

□ 이러한 한시사업 종료,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 재원보다 많은 재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취업취약 청년 등 청년층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,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.

① NEET청년을 발굴·예방하기 위한 플랫폼(10개소, 5만명)을 신설하고, 상담·훈련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, 일경험 및 직장 조기적응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.

② 대학일자리+센터를 통해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본격 시행 및 직업계고까지 대상을 확대(3→17만명)하고,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% 감면,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(2.6→4.2만명)합니다.

③ 첨단산업·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첨단 산업분야 직업훈련을 확대(3.6→4.4만명)하고, K-Move스쿨 확대(2,100→3,100명)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합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지원	(044-215-72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영	(044-215-7233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종호	(044-202-7440)
		담당자	사무관	원치욱	(044-202-7417)